

성경속에 흐르는 복음의 원리

배 광 환(목사, 전남 순천 창촌교회)

1. 들어가는 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 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다. 성경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계획이 있는데 그 힘을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게 만드신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으나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성서해석학적 능력과 영적인 수준만큼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영의 눈을 떠서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단순히 글자를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필자는 정규신학과정을 마친 30여명의 목사들과 함께 11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조금이라도 보게 되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마치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필자도 성경의 일부만 보는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통찰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는 시야를 넓혀 가고 있는 중이다.

성경은 모인버디도 하신 기기는 오기에게 아게 레주시고 보여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경 66권의 내용이다. 성경은 수많은 저자들과 몇 천년의 시대적 차이를 갖고 기록되었지만 그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된다.

창세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며 요한계시록은 그것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한 책이다.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며 몇몇 책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 그 책들도 구약의 구조 안에서 신약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모르면 신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2. 창조와 원리

1)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이 있으라고 하심으로 광명의 세상으로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세상에 생명체들이 살게 하심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셨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구별시키셔서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은 행복동산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보살피게 (통치권) 하시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무너져 광명의 세상이 다시 흑암의 세상으로, 생명으로 충만하던 세상이 다시 공허한 세상으로, 질서와 조화의 세상이 다시 혼돈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2)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마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世系)라”라고 시작한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며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예수-생명과 관계된 이름이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부음을 받은자 -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다(마4: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

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요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복음을 통해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새 질서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특히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새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으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셨다. 옛 질서 가운데 사는 것과 새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하신 것이다.

3)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데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일성수나 십일조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이 공허한 이유는 그 속에 있어야 할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새 생명을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의 강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라고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을 얻으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선택

을 받았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생명을 주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혼돈을 해결하는 능력을 주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천국)을 얻게 하리라.
(행26:16-18)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한 축복이기도 하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원리대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3. 성경 속에 들어 있는 생명의 원리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갈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식으로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육 깊이 알게 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21:13).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가르쳐준다. 성경은 생명의 시작과 종말을 가르쳐 준다. 생명의 시작과 종말 사이에는 반드시 성장과정이 있게 되어 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계시록으로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 준다. 창세기는 우주와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됨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로써 창세기를 주신 것이다.

창 2장의 정금이 계 21장에서는 새예루살렘성의 본체가 되고 진주는 12 진주문이, 보석은 성곽의 기초석이 된다.

창세기(창조) ----- 요한계시록(완성)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살피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 : 우주만물의 시작,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죄, 타락, 상실)

출애굽기 : 구속의 과정

레위기 :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제사법)

민수기 : 광야훈련(하나님의 군대로)

신명기 : 모세의 설교(말씀으로 재무장)

여호수아 : 가나안 정복(기업을 받음 = 천국, 약속의 성취)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생명이다.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의 새 이름인 사브넛 바네아로 계시되었다. 사브넛 바네아란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이다. 자신을 원수로 대했던 형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애급과 온 세상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

나님의 뜻이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아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아담 : 가죽옷(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예표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칭의)

아벨 :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 - 죄사함, 회개하다

에노스 : 이름을 부르다(카라 -기도하다, 하나님을 의존하다)

에녹 :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다(연약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지만 성장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노아 : 방주건축(교회를 건축함,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생명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뱀의 후손들은 갈수록 더욱 악해져 가지만 여자의 후손(하나님의 자녀)들은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마22:32).

아브라함의 하나님 :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써는 본받을만한 것이 별로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들을 받은 것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 :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고(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을 믿기 때문에 온유했고(우물 사건) 하나님은 백 배로 축복하여 주셨다. 이삭의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내게 보여 주면 믿겠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 돌아온 자의 하나님. 창 28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벧엘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다. 창28:13-22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①성전을 세우고 ②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며 ③전제물(예배)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했고 그가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그 약속대로 벧엘에서 제사를 드렸다(창35:14).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되었고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야곱이 돌아온 증거는 성전을 세우고(교회를 섬기고) 십일조를 하는 것이었다. 야곱에게 있어서 십일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징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씨, 약속을 줌	은혜의 특성	변화, 성화시킴	하나님의 형상(형들에 대한 분노 해결)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은총	성령의 감동	사브낫 바네아(생명의 부양자)

은혜를 받는다고 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 은혜를 받고 마음을 기경(起耕, 갈아엎어야)해야 변화가 온다.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을 거친 다음에 요셉이 된다. 즉 약속을 믿어 온

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변화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 속사람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통치권을 회복할 수 없다.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책 뒷면에 있는 계좌로 온라인으로 보내 시거나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